

제2대 고양시청소년의회 (본회의 - 5분 자유발언)

- 고양시 청소년시설 확충 제고 -

고양시청소년의회 장예원 의원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내빈 여러분! 시작하기에 앞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고양시 청소년의회 문화 상임위원회 소속 장예원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고양시 청소년 시설 확충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고양시에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은 청소년 수련관을 비롯한 청소년 활동 시설(이하 '청소년 시설')입니다. 고양시에는 수련관, 자유공간, 문화의 집, 특성화 시설을 포함해 총 11개의 시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고양시의 전체 인구의 약 18.8%를 차지하는 196,263(십구만 육천이백육십세)명의 청소년을 수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또한, 청소년 중에서는 고양시의 청소년 시설의 존재를 알지 못하는 이들도 많습니다. 저는 청소년 시설의 적극적인 홍보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 활동 진흥법 제2조(정의)에 따르면, 청소년 활동 시설이란 청소년수련활동, 청소년교류활동, 청소년문화활동 등 청소년활동에 제공되는 시설입니다. 그런데, 최근 성인 이용률이 증가함에 따라 본래의 목적을 훼손시키고 있습니다. 2019년 고양 신문의 기사에 의하면 토당 청소년 수련관의 성인 이용률이 약 50%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는 청소년 시설을 청소년들이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인이 청소년의 공간을 빼앗는 일이 없도록 청소년의 시설 이용 확대를 위한 청소년 시설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합니다.

특히나 청소년 인구가 가장 많은 덕양구는 청소년이 청소년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장거리를 움직여야 합니다. 이러한 접근성의 문제로 피시방이나 노래방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그러므로 청소년들이 청소년 시설을 이용하기보다 PC방이나 노래방 등의 청소년 유해 시설을 방문하며 자연스럽게 위험 환경에 노출되는 것입니다.

또한, 고양시의 청소년 시설은 주로 일산동구와 덕양구의 사이에 밀집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각 구의 가장자리에 거주하는 고양시 청소년은 청소년 시설의 방문이 매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덕양구의 가장 남쪽에 있는 상암 한화 오벨리스크라는 아파트 단지에서 가장 가까운 청소년 시설인 토당 청소년 수련관까지 걸리는 시간을 네이버

지도로 알아보았습니다. 그 결과 버스로는 주로 25분에서 30분 이상이 걸렸습니다. 왕복으로 계산했을 때는 무려 1시간이 걸리는 거리입니다.

이는 고양시의 청소년 시설의 접근성의 문제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게 해줍니다. 과연 1시간이나 걸리는 청소년 시설이 걸어서 10분인 청소년 유해 시설(PC방, 노래방 등)보다 매력적일까요? 저는 이 문제의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의 해결 방안은 청소년 시설의 추가 건설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저는, 청소년 시설의 대대적인 홍보 및 청소년 시설 추가 건설을 제안합니다.

청소년 시설을 추가 건설함으로써 청소년들은 건강한 여가생활을 할 수 기회를 얻으며 다양한 체험활동으로 비행 청소년 및 가출 청소년의 수가 크게 감소할 것입니다. 그리고 접근성을 높여 주거지부터 청소년 시설까지 걸리는 시간을 줄여서 청소년이 청소년 시설을 보다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유해 환경에 노출되는 청소년의 수가 감소되어 건전한 청소년 문화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시설에 관한 대대적인 홍보를 통해 청소년 시설의 성인 이용률을 감소시키고, 청소년 이용률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청소년 활동 시설의 본래 목적은 청소년활동 진흥입니다. 청소년에게 청소년 시설에 대해 알림으로써 그들이 청소년 시설을 보다 본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장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저는 청소년 시설의 추가 건설과 더불어 대대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청소년 시설이 청소년을 위해 올바르게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